

지역 소식통

농업용 드론 조종면허 자격취득 교육 신청 접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년 농업용 드론 조종면허 자격취득 교육을 오는 28일까지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을 통해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농업용 드론 조종면허 자격취득 교육생으로 선정 시 교육비 250만원 중 시에서 50%를 지원하며, 50%는 농업인 자부담이다. 올해도 64명의 농업인을 선정해 시 관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설·전문 교육원을 통해 위탁 추진한다.

시가 지원하는 농업용 드론 조종면허 자격취득 교육은 무인멀티콥터 1종을 기준으로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교육 20시간으로 총 6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드론 조종자격이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완구용모형비행장치를 제외하고 모두 자격증명이 필요하게 관련 제도가 변경되면서 드론 조종면허 자격취득 교육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풍동 국형호 신입동장

경로당 순회방문 나서

김제시 신입 국형호 신풍동장이 지역 48개소 경로당을 방문하며 어르신들에 신년 인사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순회 방문에서는 발령 인사 및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물으며 경로당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살피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풍경로당연합회장 전세철(대동경로당)은 "바쁜 일정에도 경로당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펴 준 신입동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와 신풍동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국형호 신풍동장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히 쉬고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더 살기 좋은 신풍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다시 뛰는 김제, 가슴벅찬 도전'

시, 민선8기 2주년 새로운 전환점 가시적 성과 창출

정성주 김제시장이 8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을 벽골제의 힘차게 비상하는 용처럼 더욱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8일 오전 3층 브리핑실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정 시장은 시장성과로 2024년 국가예산 1조 113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돌파와 (주)R&I

E&I 그리고 미국 MBC사 간 건설장비 1조 3천억원의 수출 업무협약, 6천 5백억원 수출 본계약 체결로 미국수출 시장 개척을 뽑았다.

특히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사업에 지정선 산업단지 내 (주)R&I와 (주)두산이 선정, 첨단 나노소재 기업(주)석경에이티, 배터리 제조업체 (주)알파온 등 미래성장기업 유치로 888억원의 투자협

약을 체결하고 266개의 신규고용을 창출했다.

김제시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 2022년도에 비해 2단계 상승한 것으로 이는 공직 최고의 미덕이자 값진 성과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2024년 새해를 민선 8기 2주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도는 해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으로 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성장도시, △활력있는 민생경제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농업도시, △옹호하는 해양항만도시,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신뢰받는 시민소통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정 시장은 "2023년도의 성과는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1,500여명의 김제시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해 준 결과로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김제시 발전에 노력하겠다"면서 "2024년은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전환점을 도는 중요한 해인 만큼 김제 100년의 초석을 놓기 위해 총력을 다해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는 8일 오전 3층 브리핑실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재정운용 또 '두각'

2년 연속 재정집행 목표 달성... 전북 군 단위 1위

대규모 국제 결혼 속에서도 2회에 걸쳐 추경을 편성하고 본예산을 증액하는 등 탄탄한 예산 운용 능력을 보여준 완주군이 재정집행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전년도 총 예산현액 1조201억원 중 84.79%에 해당하는 8,649억원을 집행해 시군 평균 집행률 80.8%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도내 군 단위 1위이자 전국 50위 이내로 진입한 수치다.

특히, 소비·투자분야(4분기)는 연내 집행 목표액의 131.98%를 초과 달성해 도내 1위, 전국 7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 결과다.

완주군은 2022년도에도 탁월한 재정집행으로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올해도 전년도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완주군은 효율적인 재정 운

용을 위해 매년 재정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회의에서는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집행전략을 수립해왔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관리하고 행정절차 신속이행 독려, 세출예산 재구조화를 통한 집행가능 사업 발굴, 긴급 입찰, 선금급 집행 등 선제적인 예산 투입에 총력을 기울였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노력해왔다"며 "올해도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지난해 대비 6명 늘어난 77명

완주군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 복지실현과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 후 심사를 거쳐 총 77명을 선정했다. 일반형 일자리 27명, 복지 일자리 5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명이 늘었다. 장애인 일자리의 사업 기간은 1

월부터 12월까지로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보건소 등에서 행정 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상훈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 기회를 갖고 소득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가 운반수단이 없는 귀농, 영세농을 위해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 농촌일손 부족 해소 앞장

농기계 현장 배달서비스확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운반수단이 없는 귀농, 영세농을 위해 적기 농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달서비스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화물차량 등 운반수단이 없어 임대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영세농, 귀농인, 독거 여성농업인 등이 농작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기존 배달임차료 12만원 중 9만 원을 지원해 자부담을 3만원으로 줄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자부담

을 2만원으로 줄여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손쉽게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지역 농민이 79건의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올해에는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농인 실용 교육 등 사전설명과 농기계 마을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통해 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며 보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금남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8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을 방문했다.

김제농기센터 "AI 추가 발생 방지 총력"

박금남 소장, 초소 근무자 격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8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을 방문해 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현장을 점검하고 초소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에는 지난해 12월 8일 용지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12월 23일까지 AI가 추가로 발생해 가금 165만 마리가 살처분됐으며 관내 하천과 소류지에서 철새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 아직도 추가 발생 위험

이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방역 업무에 고생하는 초소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산 농가에 AI 방역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했다.

박 소장은 "악성 가축전염병인 AI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살수차, 초소, 소독시설을 총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금농장에서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장 출입 시 반드시 소독하고 출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